

“SNS?... 꼭 빠져들까봐, 시작도 안했죠”

이청용과의 유쾌한 수다



볼턴 리버풀 스타디움 2층에 위치한 커피숍. 약속 시간 오전 10시에 정확히 맞춰 카페에 들어선 이청용(볼턴)에게 주변의 모든 시선이 쏠렸다. 이청용이 입고 있던 후드 티셔츠에 쓰인 문구가 인상적이었다. 'THE BEST DAY OF MY LIFE(내 인생 가장 행복한 날)' 문이 설명이 필요 없다. 이청용의 등장에 카페에 있던 볼턴 시민들은 연신 엄지를 치켜세웠다. 미처 종이를 준비할 수 없어 신문에 사인을 받아가는 팬도 있었고, "당신은 최고의 스타"라며 격려하는 사람도 있었다.



13일(한국시간) 열린 버밍엄과 FA컵 8강전에서 헤딩 결승골을 터뜨린 이청용(위) 스포츠동아 창간 3주년을 맞아 단독 인터뷰를 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셔츠에 쓰인 '내 생애 최고의 날'이란 글자가 눈에 들어온다. 버밍엄(영국) | 로이터 연합뉴스, 볼턴 | 김신애 통신원

스마트폰 잘 다루지만 계정 없어 쉬는날엔 맛집탐방·요리 등 즐겨

EPL 2년차...나보다는 팀이 우선 "FA컵 결승서 지성형 꼭 만나야죠"

●축구와 이청용은?

이청용은 영국에서의 2년차 시즌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번 시즌을 통해 볼턴을 FA컵 4강에 올린 주인공이 됐고, 팀 내 입지를 다시 한 번 확실히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렇다면 본인이 느끼는 지난 시즌과 올 시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

그는 현지생활과 경기운영의 안정을 뽑았다.

"2년 차에 접어 들다보니 현지생활에 많이 익숙해졌다. 그래서인지 한결 마음도 가벼워지고 좀 더 경기에 집중 할 수 있게 됐다. FA컵 4강에 오르며 올해 계획한 목표를 얼마간 이뤘다. 물론 남은 경기도 중요하지만, 내년 유로파리그에 나가기 위해서는 팀 성적이 6, 7위 안에는 들어야 한다. 좋은 결과가 나올 듯 하다."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모습으로 경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피지컬 보강과 개성이 더욱 필요하다는 자신만의 마스터플랜도 공개했다.

FA컵 4강에서 볼턴은 스토크시티를 만난다. 현 상대라면 이청용의 바람대로 박지성과의 FA컵 결승에서의 만남이 기대된다. '꿈의 무대' 런던 웨블리구장에서 조우. 4월17일(한국시간) 볼턴이 4강전에서 승리하면 맨유와의 대결이 성사될 수 있다.

최근 이청용은 이탈리아 언론으로부터 주목할 88년생으로 선정됐다.

만약 기회가 된다면 여러 리그를 체험해 본다는 것은 선수로서는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청용은 축구 중추국 영국에서의 활동을 만족하고 있었다.

그래도 요즘 부쩍 찾아진 교체 출전에 대한 생각이 궁금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격정과는 달리, 이청용의 생각은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내가 볼턴 감독이라도 주전 선발에 많은 고민을 할 것 같다."

오히려 경쟁을 즐기는 이청용이다.

"케빈 데이비스, 엘만더, 스테리지와 함께 뛰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다. 오히려 배운다고 해야 할까. 급할 게 없다. 그냥 행복하다."

볼턴 오언 코일을 감독 비롯해 팀 동료들까지, 늘 겸손함과 출중한 실력으로 무장한 그를 어떻게 아끼지 않을 수 있을까.

●평범한 청년 이청용

쉬는날엔 이청용은 무엇을 할까?

팀을 대표하는, 그리고 한국 최고의 선수로 우뚝 선 그지만 의외로 평범하다. 가끔 쇼핑을 즐기며, 이곳저곳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다양한 음식들을 맛보고 싶단다.

요리 실력도 꽤 있는 듯 하다.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는 기본. 만약 학업을 다시 한다면 음식 공부를 하고 싶다는 바람도 내비쳤다.

물론, 그의 꿈이 요리사는 아니다. 음식 전문가?

거의 2년 간 휴식 없이 달려 온 이청용에게는 작은 바람이 있다. 올 시즌이 끝나면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고 한국 여행을 하면서 휴식을 취하고 싶단다. "독일에 있는 구자철을 만나러 가고 싶다. 유럽여행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축구가 아무리 좋아도 결코 변하지 않는 부분. 가장 소중한 것들은 주위 사람들인데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챙길 여유가 없었 다며 아쉬워했다.

이청용은 얼마 전 광고 촬영을 했다. 이를 놓고 지역지 볼턴 뉴스에서는 이청용을 제임스 본드와 비교해 눈길을 끌었다.

개인적으로 찍고 싶은 광고나 촬영 중에 피소드에 대해 물었다.

"촬영이 길게 진행돼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운동 외에 새로운 경험이였다. 특별히 찍고 싶은 광고는 없다."

이청용은 거친 축구 선수답지 않게 잡티 하나 없고 또한 피부가 가지고 있다. 한 가지 추천한다면 화장품 광고?

●이청용도 G세대

포래들처럼 이청용 역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쉽 없이 만지작만지작 하는 손놀림이 꽤나 능숙해 보였다. 요즘 유행하는 애플리케이션 가운데 하나인 닭은 꿀 연예인 찾기를 해봤냐고 물었다.

자신이 나왔다며 웃어보였다. "이청용이 이청용이던데... 다른 사람은 나오지 않더라."

하지만 SNS(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와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였다.

요즘 대표팀 선수들 사이에서 유행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시작하게 되면 헤어 나지 못할까 걱정스럽고, 부담도 크단다.

이청용과의 인터뷰 말미, 잉글랜드 무대에 유익하게 남은 선수가 된 기분을 물었다. "앞으로 많은 선수들이 영국을 비롯해 많은 유럽 리그에서 함께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보다 나은 리그의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축구 발전에 기여하면 좋을 것 같다. 꾸준히 나왔으면 한다."

볼턴(영국) | 김신애 통신원



명실상부 볼턴 에이스가 된 이청용은 스포츠동아와의 현지 인터뷰에서 "꾸준히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 13일(한국시간) 열린 버밍엄과의 FA컵 8강전에서 결승골을 터뜨린 이청용이 환호하고 있다. 버밍엄(영국) | 로이터 연합뉴스

「KBS, MBC 보도내용」... 15만km 이상 엔진오일 무교환, 개발화제!

(KBS뉴스, MBC뉴스 보도내용) 엔진에 마찰계수를 100배 가까이 감소함으로 엔진파워 향상, 연비절감, 배기가스 및 폐유 감소 등 환경친화적인 엔진오일이 15만km 이상 무교환으로 주행한다는 내용을 보도

오일의 혁명! 새로운 윤활개념의 금속 이온 유막제

엔진에 마찰계수를 100배 가까이 감소함으로 엔진파워 향상, 연비절감, 배기가스 및 폐유 감소 등 환경친화적인 엔진오일이 15만km 이상 무교환으로

여 윤활효과를 극대화시켜주는 물리 화학적 새로운 윤활 개념의 금속 이온 유막제이며 코팅제와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 운전자들이 느끼는 불편함중 하나는 바로 엔진 오일의 교환일 것이다. 기존의 엔진 오일들은 5,000km 이상 주행하게 되면 슬러지가 발생되고



OO기술연구소의 임상 결과로 효능 입증

엔진오일과 비교했을때 엔-메이트가 일반 엔진오일보다 제동 연료 소비율이 더 낮고 CO배출 가스, CO2배출 가스도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주행후 엔진 오일과 오일 필터에 남아있는 불순물이 현저하게 적게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엔-메이트는 엔진 소음을 감소시켜 승차감을 보다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며 마찰 계수를 100 배 이상 감소시켜 엔진의 파워를 증가시켜 준다. 뿐만 아니라 겨울철 혹한의 추위(-45°)에도 시동성이 탁월하다. 엔-메이트는 매연을 70~80% 감소시켜 기고 폐유 발생을 줄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줄이는데도 큰 역할을 해낸 것으로 큰 기대를 받고 있다.

상담/문의 1599-3299



‘벌써 엔진오일 갈때야?’ 작은 엔진오일 교환에 짜증은 그만!

주행한다는 내용으로 KBS뉴스, MBC 뉴스, YTN뉴스, MBN뉴스 등의 집중 보도된 무교환 신개념 오일 '엔-메이트'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엔-메이트 트리 트리트먼트 오일은 금속 미세한 기공까지 침투하여 금속과 분자 결합하며, 마찰되는 금속자제를 처리된 금속 경도보다 극도로 매끄럽고 강한 금속 이온 유막을 형성, 마찰력을 획기적으로 줄

키본 및 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새 엔진 오일로 교환을 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엔-메이트는 이런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신개념의 엔진 오일로 한번 주입후 약간의 보충만 해주면 20만km도 거뜬히 주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운전자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OO기술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엔-메이트(DJ 케미컬 제조)와 일반

엔진파워, 연비절감, 매연감소, 15만km 이내에 무교환엔진오일등에 1%라도 만족치 못한다면 100% 환불 책임보상함(보증서 발급) 7일간 무료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효과 없으면 즉시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오일 주입후 5,000km 이상이 되면 오일을 교환하는 번거로움과 교환 비용이 절약되고 20만km 이상을 무교환, 무보링을 보장하며 차량의 수명을 대폭연장할 뿐만 아니라 탁월한 마모 억제 효과로 엔진 수명을 3~5배 이상 증가시킨다. 또한, 불순물 발생을 예방하여 엔진 오일 수명을 평균 30배 이상 연장하며 마찰계수를 1/100로 감소시켜 엔진파워에 도움을 준다.

엔-메이트 오일의 모방할 수 없는 9대 장점

- 1 불순물 발생을 예방하여 엔진오일의 수명을 30~50배 이상 연장시킴
- 2 마찰계수를 100배 이상 감소로 증가된 엔진의 파워(오르막길, 추월시 쾌속력)
- 3 여름철 긴 오르막길을 에어컨 켜고 운행시 과열(오버히트)방지
- 4 겨울철 혹한 추위에(-45°) 탁월한 시동성, 특히 LPG차량 전자중 워밍업 불필요
- 5 매연을 70~80%(단, 부린자 및 노즐이 노후화된 차량은 제외)감소하여 환경에 기여
- 6 탁월한 마모 억제로 엔진수명을 3~5배 이상 연장 운행
- 7 확실한 연료 절감으로 경제 절약
- 8 소음감소로 쾌적한 승차 분위기
- 9 부드러운 질주로 운전자 피로 감소

적용 차량

트럭, 화물차량, 자가용, SUV차량, 디젤 차량, 승합차, 버스, 굴삭기, 벙크, 소형비행기 등 엔진오일을 사용하는 모든 기계

(주)에코에프엔비 대표자 정용훈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 강남-11555

☎ 1599-3299
TM모집 : 010-5498-1091(최고대우)